

보도 희망 일시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
	안용섭 전화: 031-888-9055, 이메일: aws6912@snu.ac.kr

배포일: 2024.7.30.(화)

##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자율주행 기술,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도

- 서울대학교 · 경기도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(원장 차석원, 이하 융기원) 이 ‘평택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’ 을 수주하고, 7월 29일(월) 평택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.
- 이번 연구용역은 자율주행 시험환경을 확충하여 기존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융기원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, 특화 서비스 도입, 운영 및 관리 계획, 인프라 조성계획 및 사업비 산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.
- 융기원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통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제2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구축·운영하며, 자율주행 차량의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 실용성을 입증해 왔다.
-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다수의 기업이 판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, 융기원이 가진 데이터와 노하우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.
-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이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양시, 용인시, 과천시, 평택시까지 각 지자체의 환경에 특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다.

- 이번 평택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연구용역 착수로 경기도 전역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되며, 그 중심에는 융기원이 있다.
- 차석원 융기원장은 “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교통 체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” 며, “판교의 성공 모델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해 시민들이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- 융기원이 운영 중인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, 국내 최초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서플 완성차 모델을 공개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의 실용화를 선도하고 있다.
- 현재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‘판타G버스’ 를 통해 자율주행 대중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며,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
- 한편 융기원은 2008년 개원 후 2018년 서울대학교와 경기도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 됐으며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 사업, 경기도 반도체 육성지원 사업,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사업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해양수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차석원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.